

내현적 · 외현적 자기에와 SNS 중독경향성: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 영 은 박 현 주 허 창 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자기에(내현적, 외현적)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역할을 검증하였다. 세부적으로 대인관계 문제를 신경증적 경향성에 따라 세 가지 하위유형 즉, 향함 문제(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멀어짐 문제(냉담, 사회적 억제), 맞섬 문제(통제지배, 자기중심성, 과관여)로 구분하고, 자기에 중 내현적 자기에는 향함, 멀어짐, 맞섬 문제를 매개로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외현적 자기에의 경우 맞섬 문제를 매개로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 199명에게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가설과 같이 내현적 자기에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향함 문제, 멀어짐 문제, 맞섬 문제가 완전매개하고 있었으며, 외현적 자기에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맞섬 문제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인관계 문제 중 멀어짐 문제는 SNS 중독경향성을 감소시키는 억제효과를 보여주었으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SNS 중독경향성에 대해 자기에 유형과 대인관계 문제 유형에 따른 차별적 접근의 시사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내현적 자기에, 외현적 자기에, 대인관계 문제, SNS 중독경향성

* 본 논문은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과제로 수행되었습니다.

† 교신저자: 허창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E-mail: ckhur@cu.ac.kr

1990년대가 월드와이드웹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인터넷 시대라 한다면, 2007년 이후는 아이폰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스마트폰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의 확대에 따른 인터넷 중독 및 게임중독은 인터넷과 전화가 결합된 스마트폰과 만나 스마트폰 중독 및 SNS 중독 등의 새로운 용어를 낳았다.

스마트폰은 빠른 정보력과 미디어매체의 간편한 이용,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인해 현대인들에게 빠르게 보급화 되어가고 있는데, 특히 20대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7.2%에 달하며, 중년층인 40대의 스마트폰 보급률도 90%에 육박하고 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더불어 모바일 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가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은 더욱 공간적 제약이 없는 사회적 관계 형성이 가능하게 되었고, 스마트폰을 통한 SNS 이용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Barbera, Paglia, & Valsavoia, 2009; Ji, Hwangbo, Yi, Rau, Fang & Li, 2010; Salehan & Negahban, 2013).

이러한 SNS의 기능과 확산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제공해주었지만 과도한 이용자에게는 SNS 중독과 같은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NS를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는 담배 또는 술의 중독성보다도 더 강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Hofmann, Vohs & Baumeister, 2012), 이는 SNS에 과몰입하게 될 가능성이 다른 중독행위에 빠지게 될 위험성보다 높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SNS의 과다사용은 SNS 피로증후군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낳기도 하였다. 과다한 SNS 이용으로 발생하는 피로감을 일컬어 SNS 피로증후군이라고 하며, 이는 1996년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에 의해 처음 제시된 정보피로증후군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SNS 피로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SNS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누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궁금해 미치겠다는 등과 같은 다양한 증상을 호소한다(김환표, 2013). 즉 이러한 요인

들은 피로하지만 어쩔 수 없이 SNS를 사용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SNS의 부작용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회문제로 ‘신상 털기’와 같은 사생활 보호의 문제는 당사자 이외의 주변인의 신상까지 공개되는 2차적인 피해를 낳기도 한다(박경자, 유일, 이윤희, 2014). 또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이어지는 악성댓글로 인한 사이버 폭력도 SNS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로 인해 과거 청소년들의 심신 발달과 정서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되었던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중독과 마찬가지로 최근 스마트폰 중독과 SNS 중독을 인터넷 중독의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중독진단이 진행되고 있다(이상호, 2013).

20대는 10대의 삶과 다른 전환점을 맞아 지금까지 맺어왔던 사회적 상호작용 패턴에 변화를 겪게 된다. 이는 대인관계에 불안을 가지게 만들고, 스스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김중운, 양민정, 2014; 우성범, 남숙경, 이승민, 양은주, 2012). 이러한 대인관계의 문제는 현실세계가 아닌 가상세계에 집착하는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폰 중독을 증가시키기도 한다(이순희, 차은정, 2014; 이정숙, 2012). 또한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 등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덜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대인관계에 빠져들게 된다(Kalkan, 2012; Ward & Tracey, 2004).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프라인에서의 대인관계 문제는 온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 즉, SNS에 대한 과몰입을 유발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대인관계 문제는 개인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데(Kerr, Patton, Lapan, & Hills, 1994), Swensen(1973)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비로소 성격이 분명한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고려되지 않은 성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인관계 문제와 함께 연구되는 성격변인 중에는 자기애(narcissism)가 있는데(우성범, 남숙경, 이승민, 양은주, 2012), 내용에 따라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khtar & Thomson, 1982).

내현적 및 외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를 다룬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면서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취약하여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회피하며(정남운, 2001; 최민경, 김종남, 2010), 외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지배적이고 무시하는 태도를 지니며, 상사와의 관계 뿐 아니라 동료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연우, 2004; 정남운, 2001).

최근 들어 자기애가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SNS 중독 등 온라인 매체의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애 성향이 강할수록 스마트폰과 SNS를 더 많이 사용하며(서경현, 조성현, 2013; Pearson & Hussain, 2015; Wickel, 2015), 특히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은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자기애적 욕구를 인터넷에서 보상적으로 경험하면서, 인터넷 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이계정, 정남운, 2007; 제순하, 2011).

외현적 자기애와 관련하여 Kuss와 Griffiths(2011)은 외현적 자기애의 특성 중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으로부터 자기칭찬과 과도한 주목의 욕구 등은 인터넷 중독과 SNS의 중독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 류경희와 홍혜영(2014)의 연구에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모두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Park와 Kang(2013)의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에 정적 상관을 보였고, Aviram와 Amichai-Hamburger(2005)의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가 인터넷 중독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애가 대인관계 문제를 통해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자기애의 두 유형인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대인관계 문제를 Horney(2006)가 세 가지로 구분한 향함(moving toward people), 멀어짐(moving away from people), 맞섬(moving against people)으로 나누어 각각의 간접효과 경로를 세부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는 서로 공통된 핵심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상이한 측면이 존재한다. 내현적 자기애의 경우, 외적으로는 자기애적인 성격특징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 내면에는 자기애적인 성격 역동과 기제가 존재하며(권석만, 한수정, 2000), 외현적 자기애는 겉으로 자신의 웅대성을 과시하려는 자기애적 성격특징이 나타난다. Akhtar와 Thomson(1982)은 자기애를 설명하면서 자기개념, 대인관계, 사회적 적응, 윤리와 규범 및 이상, 사랑과 성, 인지양식의 여섯 가지 영역에서 결합이 있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성향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의하면 내현적 자기애는 지나치게 민감하고 취약하며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만능적인 이상화와 강한 시기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외현적 자기애는 자신에 대해 고양되어 자기존중적이고 거만한 웅대성과 특권의식을 가지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다(강선희, 정남운, 2002).

Cooper(2000)은 두 가지 자기애 유형이 공통된 역동을 지니면서도 서로 다른 현상적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손상된 자기표상을 복구하기 위해 취하는 방어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내현적 자기애는 가능한 비판과 비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비난의 단서가 없는지 타인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확인(affirmation)을 피하는 방식으로 취약한 자기개념을 보호하는 반면, 외현적 자기애의 경우 경탄을 요구하고 웅대성을 전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으로 취약한 자기개념을 보호하려는 역동을

나타낸다(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대인관계 문제와 자기애

대인관계는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복합적인 패턴이며,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데 있어 대인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권석만, 1995; 이형득, 1992). 따라서 타인과 형성하는 친밀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는 인간의 행복과 불행, 만족과 불만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이형득, 1992).

그러나 대인 간 상호작용 과정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경우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Kelley & Thibaut, 1978). 대인관계 문제란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문제나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다(정애리, 유순화, 2008).

Leary(1957)는 모든 대인관계 문제행동을 지배적인 행동으로 부터 복종적인 행동에 이르는 수직적 '통제지배 차원'과 친밀한 행동으로 부터 적대적인 행동에 이르는 수평적 '친애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 두 차원의 조합으로 8개의 행동차원을 포함하는 대인관계 원형모델을 제안했다. 이후 Horowitz(1996)은 Leary(1957)의 8개 행동차원을 토대로 하여 대인관계 문제척도(IIP;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Scale)를 개발하였으며, 김영환 등(2002)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한국형 대인관계 문제검사(KIIP;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를 개발하였다.

대인관계 문제의 8개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자신감과 주장성이 낮고 자존감이 결여된 '비주장성',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쉽게 설득 및 이용당하는 '과순응성', 타인의 욕구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자기희생', 타인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통제지배', 자신의 안녕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자기중심성', 다른 사람에게 대해 지나치게 관여하는 '과관여',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 경험과 감정 표현이 어려운 '냉담', 비사회적인 경향과 수줍음이 과도한 '사회적 억제'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Horney(2006)에 따르면 인간은 근본적인 불안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세 가지 신경증적 경향성(neurotic trends)으로 행동한다. 그녀는 이러한 경향성을 '향함(moving toward people)', '맞섬(moving against people)', '멀어짐(moving away from people)'으로 구분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Horney(2006)는 먼저 '맞섬 문제'를 타인을 통제하고 지배하며, 타인에 대한 우월감을 느끼려는 욕구가 강한 경향성으로 보았다. 맞섬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속이거나 이용하기도 하며, 어떤 상황이나 관계 속에서 항상 무언가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게끔 하고 싶어 하는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 또한 자신을 가장 강하고, 가장 영리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존재로 내세우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69-80p). 이는 대인관계 문제 하위요소 중 통제지배('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자주 조종하거나 이용한다.'), 자기중심성('다른 사람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기가 어렵다.'), 과관여('늘 주목받고 싶어진다.')의 내용을 포함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Horney(2006)는 '향함 문제'를 타인의 긍정적인 평가와 사랑과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강한 경향성으로 보았다. 향함 문제를 지닌 사람들은 순종적이고, 이타적이며, 희생적이며 타인을 지나치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53-67p). 이는 대인관계 문제 하위요소 중 과순응성('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쉽게 따른다.'), 자기희생('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불행을 보면 도와주려고 너무 나선다.'), 비주장성('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Horney(2006)는 '멀어짐 문제'를 자신과 타인의 감정적인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내적 욕구를 가지는 경향성으로 보았다(81-105p). 이는 냉담('다른 사람에게 호감이나 애정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사회적 억제('다른 사

람들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유형별 차별적인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8가지 대인관계 문제유형을 Horney(2006)의 세 가지 구분에 따라 향함 문제, 멀어짐 문제, 맞섬 문제로 범주화하여 접근하였다.

대인관계 문제는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는데, 특히,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에 부적응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되어 왔다(강은정, 장성숙, 2007; 백승혜, 현명호, 2008; Weikel, Avara, Hanson, & Kater, 2010). 이를 대인관계 문제의 하위유형 별로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 중 자신이 무가치하고 불행하다 느끼며 소심하고 평가에 예민한 성향은 대인관계 문제 중 자신은 무력하지만 타인은 강하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고집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의존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향함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Wells, Hill, Brack, Brack, & Firestone, 2006). 이러한 의존적 경향성의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다른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낯선 사람과의 사회적 접촉을 피하게 되는데(오홍석, 2007), 이는 대인관계 문제 중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불편해하는 ‘멀어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애도 친밀한 관계에서는 과시적이고 웅대한 환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이민진, 2012),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타인을 지배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우월감을 느끼려는 ‘맞섬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한편, 자기애적 성격특성이 강한 외현적 자기애는 자신을 과시하고, 타인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맞섬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최종순(2003)은 외현적 자기애의 3가지 하위요인과 대인관계의 8가지 하위유형 간 상관관계를 보고했는데, 이때 외현적 자기애의 3가지 하위요인 모두와 상관관계를 보여준 대인관계 문제는 간섭성, 지배성, 보복성이었으며, 이 3가지 대인관계 문제 요인

은 본 연구에서 맞섬 문제로 범주화한 요인들이었다. 또한, 이지영(2015)의 연구에서도 외현적 자기애는 대인관계 문제의 하위유형 중 ‘맞섬 문제’에 해당하는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과관여와 정적 상관을 보여준 바 있다.

SNS 중독경향성과 자기애 및 대인관계 문제

SNS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정보 공유, 인맥관리, 자기표현 등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주로 개인의 일상생활을 공유하거나 친교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한혜원, 문아름, 2014). SNS는 그 특성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방형 SNS는 불특정 다수에 자신을 드러내는 서비스인 반면, 폐쇄형 SNS는 오프라인의 인맥을 동원해 온라인상에서 보다 깊이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서비스라 볼 수 있다. 개방형 SNS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폐쇄형 SNS는 밴드, 카카오톡 등이 있다(이정권, 최영, 2015).

SNS 중독은 인터넷 중독 하위 유형인 관계중독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 새롭게 등장한 중독개념으로서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으나(정소영, 김중남, 2014), 오윤경(2012)은 SNS 중독경향성을 SNS를 과다 사용하여 금단과 내성을 경험하면서 스트레스와 우울증, 의존증, 집중력 저하, 강박 등의 정신적 피로와 신체적 문제가 나타나 개인의 일상생활 및 적응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되어진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자존감, 소외감, 외로움, 사회적 지지, 사회불안, 내현적 자기애, 대인관계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선미, 서경현, 2015; 서경현, 조성현, 2013; 황희은, 김향숙, 2015). 그

중 자기애는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Dougherty & Lesswing, 1989; Fernandez & Sztulman, 1998). 현실에서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에 민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경우, 온라인상의 SNS에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쉽게 표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SNS가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구철과 문중호(2014)의 연구에서도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에 영향을 미쳤다. 외현적 자기애의 경우 아직까지 SNS 중독경향성과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지만, SNS 활동을 통해 외현적 자기애의 특성인 자기주장과 노출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SNS 중독 경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Buffardi와 Campbell(2008)은 외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 경향성 및 인터넷 중독과 정적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SNS 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는 사회교환이론(Emerson, 1976)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교환이론은 대인관계를 보상과 비용의 개념으로 분석한 이론으로써 특히 보상은 사회적 보상 즉, 칭찬이나 명예, 권력 등과 같은 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있다(Blau, 1964). 사회적 보상은 인간의 기본 욕구로써 이는 인본주의학파인 Maslow (1943)의 인간기본욕구 5단계 중 ‘자아존중의 욕구’에 포함되어있는데,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이 어려운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 즉 사회적 보상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을 찾음으로써 자신의 제한된 대인관계의 보상을 만회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Drussell(2012)은 SNS에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의 양이 페이스북의 ‘좋아요 수’ 또는 그에 대한 반응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현실세계에서의 사회적 보상이 가상공간에서 나타난 것으로 게시글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보상이 증가하고 SNS를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SNS를 중독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오프라인에서 제한된 대인관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데, 대인관계 문제를 독립적 문제와 의존적 문제로 구분하여 실시한 김보경(2014)의 연구에서도 대인관계 문제가 SNS 중독경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목적 및 연구가설

새로운 환경은 인간의 삶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90년대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 기반의 생활환경 또한 우리의 삶에 다양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안겨주었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인터넷 중독 및 게임중독 등에 쉽게 노출되었고 그로인해 관련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인터넷 보급 이후에 등장한 스마트폰도 초고속 통신망(LTE)과 결합하면서 인터넷 보급의 속도를 넘어섰으며 휴대폰을 대체하여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게 만들었다. 스마트폰은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특성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의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에 발맞춰 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의 모바일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이제는 SNS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SNS 중독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비록 SNS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인터넷 중독과는 상이한 측면이 존재할 것이며, 이용 매체에 있어서도 스마트폰 뿐 아니라 PC를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휴대전화 중독과 차별화될 것이기 때문에, SNS 중독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 SNS 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다뤄지고 있는 대인관계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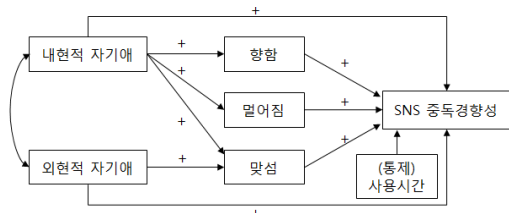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제에 있어서도, 보편적인 대인관계 문제의 수준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대인관계 문제의 다양한 양상을 고려하여 대인관계 문제유형 각각이 보여주는 차별적인 특성을 세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 주사용 연령인 20대를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역할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인관계문제를 3유형 즉, 향함 문제, 떨어짐 문제, 맞섬 문제로 구분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향함, 떨어짐, 맞섬 문제가 모두 매개하고, 외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맞섬 문제가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고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1.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향함 문제가 매개할 것이다.

가설 2.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떨어짐 문제가 매개할 것이다.

가설 3.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맞섬 문제가 매개할 것이다.

가설 4. 외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맞섬 문제가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20대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으며, 수거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99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했다.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71명(35.7%), 여자 128명(64.3%)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66명(33.2%), 2학년 61명(30.7%), 3학년 26명(13.1%), 4학년 31명(15.6%), 대학원생 15명(7.5%)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들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등으로 다양하였고, 하루 평균 사용시간은 30분미만 35명(17.6%), 1시간 53명(26.6%), 2시간 59명(29.6%), 3시간 36명(18.1%), 4시간 이상 16명(8.0%)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특성에 따른 SNS 중독경향성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SNS 중독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 = -2.65, p < .01$). 또한 SNS 사용시간이 길수록 SNS 중독경향성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F = 13.52, p < .001$), 2시간 이상 사용자 사이에서는 SNS 중독경향성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측정도구

응답자의 내현적 자기애, 외현적 자기애, 대인관계문제, SNS 중독경향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리커트식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내현적 자기애는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Akhtar와 Thomp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로 기존의 자기애 척도에서 적절한 문항을 빌려오거나 연구자가 새로운 문항을 개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내현적 자기애 척도(CNS; Covert Narcissism Scale) 45문항을 사용했다. 하위요인으로는 목표불안정(‘나의 문제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정말 모른다는 것이다’),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항상

표 1. 참가자 특성과 SNS 중독경향성

구분		N (%)	M (SD)	t, F	post hoc
성별	남 자	71 (35.7)	2.00 (.66)	-2.65**	
	여 자	128 (64.3)	2.25 (.65)		
학년	1 학년	66 (33.2)	2.17 (.64)	.314	
	2 학년	61 (30.7)	2.19 (.64)		
	3 학년	26 (13.1)	2.17 (.74)		
	4 학년	31 (15.6)	2.04 (.65)		
	대학원	15 (7.5)	2.22 (.78)		
이용 SNS (단일선택)	페이스북	151 (75.9)	2.17 (.67)	1.965	
	인스타그램	26 (13.1)	2.13 (.63)		
	카카오토리	5 (2.5)	1.83 (.86)		
	트위터	10 (5.0)	2.60 (.55)		
	기 타	7 (3.5)	1.81 (.28)		
하루 평균 사용 시간	30분 미만	35 (17.6)	1.65 (.54)	13.52***	a
	1시간	53 (26.6)	2.00 (.60)		ab
	2시간	59 (29.6)	2.34 (.54)		bc
	3시간	36 (18.1)	2.36 (.65)		bc
	4시간 이상	16 (8.0)	2.71 (.69)		c

** $p < .01$, *** $p < .001$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다’, 착취/자기중심성(‘필요하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할 것이다’), 과민/취약성(‘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낀다’), 소심/자신감 부족(‘나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다’)이 있으며 각각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문항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α)는 .93이었다.

외현적 자기애는 황순택, 오경자, 최정훈(1995)이 DSM-III-R(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의 진단준거를 바탕으로 전형성 평정에 의해 개발한 자기보고식 검사인 자기애 성격장애척도(NPDS; Narcissism Personality Disorder Scale) 18문

항을 사용했다. 하위요인으로는 자기중심성(‘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이나 행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기분이 나빴던 적이 종종 있다’) 9문항, 웅대성/자기칭찬과 주목의 욕구(‘누가 나를 좋지 않게 평가하면 화가 치밀거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낀다’) 7문항, 과장된 자기지각(‘나는 남들에게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외현적 자기애의 문항내적 합치도 계수는 .87이었다.

대인관계문제는 홍상환 등(2002)이 개발한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 단축형(KIIP-SC)을 사용했다. 총 40문항이며 하위요인으로는 통제지배(‘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다른 사람과

마찰이 있을 때가 많다'), 자기중심성('다른 사람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기가 어렵다'), 냉담('다른 사람에게 호감이나 애정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사회적 억제('다른 사람들을 너무 어려워한다'), 비주장성('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 과순응성('뚜렷한 주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이 끌려 다닌다'), 자기희생('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다'), 과관여('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참견하고 싶어 진다')가 있으며 각각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문항 내적 합치도 계수는 .94이었다.

SNS 중독경향성은 정소영과 김종남(2014)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 32문항을 사용했다. 하위요인으로는 조절실패/일상생활장애('SNS를 너무 많이 해서 그것이 나의 일 또는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7문항, 몰입/내성('SNS에서 타인의 댓글을 보기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확인한다') 7문항, 부정 정서의 회피('무력감 또는 우울

감을 줄이기 위해 SNS를 한다') 5문항, 가상세계 지향성/급단('SNS를 하지 못하게 되면 사는 즐거움 또는 재미를 잃는다')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SNS 중독경향성의 문항 내적 합치도 계수는 .94이었다.

결 과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상관관계 분석결과 각 변인 간 관련성은 표 2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가정한 매개모형과 일관되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현적 및 외현적 자기애 모두 대인관계 문제($r=.75$, $r=.53$) 및 SNS 중독경향성($r=.44$, $r=.43$)과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대인관계문제 또한 SNS 중독경향성($r=.43$)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통계 변인(성별, 학년, SNS 사용시간) 중 SNS 사용시간($r=.45$)

표 2. 주요변인들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량

	1	2	3	3-1	3-2	3-3	4	5	6	7	첨도	왜도
1. 내현적 자기애	1										-.41	.48
2. 외현적 자기애	.57**	1									-.14	.21
3. 대인관계문제	.75**	.53**	1								-.05	-.32
3-1.항함 문제	.60**	.38**	.85**	1							.04	-.43
3-2.벌어짐 문제	.66**	.33**	.89**	.66**	1						.25	-.26
3-3.맞섬 문제	.65**	.69**	.76**	.46**	.54**	1					.15	.04
4. SNS 중독경향성	.44*	.43**	.43**	.40**	.23**	.48**	1				.24	-.71
5. SNS 사용시간	.11	.05	-.03	.04	-.08	-.03	.45**	1			.20	-.80
6. 성별	.20**	-.00	.10	.07	.10	.09	.19**	.26**	1		-1.65	-.60
7. 학년	-.10	-.09	-.04	.01	-.08	-.05	-.03	-.18*	-.07	1	-.76	.65
M	2.73	2.70	2.34	2.59	2.23	2.21	2.16	2.72	1.64	2.34		
SD	.48	.49	.53	.64	.71	.53	.66	1.18	.48	1.29		

주. SNS 사용시간(일평균): 1(30분 미만), 2(1시간), 3(2시간), 4(3시간), 5(4시간 이상). 성별: 남자(1), 여자(2). 학년: 1(1학년), 2(2학년), 3(3학년), 4(4학년), 5(대학원생)

* $p < .05$, ** $p < .01$

과 성별($r=.19$)이 종속변인인 SNS 중독경향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추가적으로 SNS 사용시간과 성별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SNS 사용시간이 SNS 중독경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43, p<.001$), 성별($\beta=.07, ns$)의 영향은 무의한 것으로 나타나, 경로모형 분석 시 SNS 사용시간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한편, 단순 상관관계 상으로는 제안모형에서 가정하지 않은 외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의 두 가지 하위유형(향함, 멀어짐) 사이에서도 정적 상관관계($r=.38, r=.3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내현적 및 외현적 자기애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대인관계 문제 하위유형 각각을 준거변인으로 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향함($\beta=.56$)과 멀어짐($\beta=.70$)의 문제에는 내현적 자기애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맞섬 문제에는 내현적 자기애($\beta=.38$)와 외현적 자기애($\beta=.47$)가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제안모형에서 가정한 관계를 지지하는 결과였다.

매개효과 경로분석

제안모형에 포함된 네 가지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한 경로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각 변인의 첨도와 왜도를 통해 다변량 분석을 위한 정상성을 확인한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각 변인의 첨도와 왜도가 모두 0에 가까운 값을 보여 다변량 정상성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다음으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지수(VIF)와 공차한계(tolerance)를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지수가 1.94~2.56로 10 보다 크지 않고, 공차한계가 .39~.52로 .10 보다 작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과 모형비교는 제안모형에서의 각 경로계수와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후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한 수정모형과 가설로 설정하지 않은 경로를 추가한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제안모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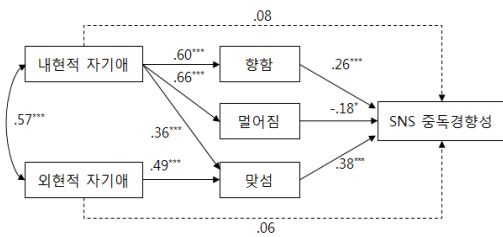


그림 2. 제안모형의 표준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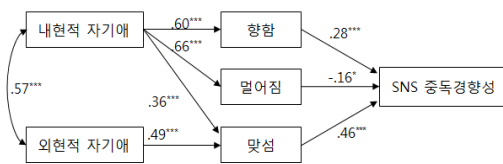


그림 3. 수정모형의 표준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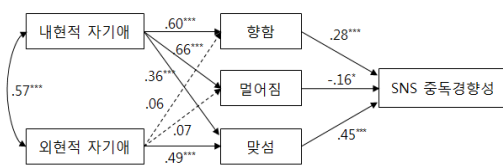


그림 4. 경쟁모형의 표준 경로계수

표 3. 제안모형 및 경쟁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모형	χ^2	df	CFI	TLI	RMSEA
제안모형	19.001	8	.983	.954	.083
수정모형	21.301	10	.982	.962	.076
경쟁모형	17.989	8	.984	.958	.079

적합도 지수와 표준 경로계수는 표 3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제안모형의 CFI는 .983, TLI는 .954, RMSEA는 .083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이었으며, 변인 간 영향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직접 경로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가정과 달리 멀어짐 문제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가 부적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데이터를 설명하는 보다 간명한 모형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두 직접효과 경로를 제외한 수정모형을 구성하였다. 수정모형의 CFI는 .982, TLI는 .962, RMSEA는 .076으로 제안모형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카이스퀘어 차이검증 결과 증가한 자유도에 비해 카이스퀘어의 증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Delta\chi^2=2.30$, $\Delta df=2$), 보다 우수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가정한 자기애 종류와 대인관계 문제 유형의 차별적 관계 설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설에서 설정하지 않은 외현적 자기애와 향함 문제 및 멀어짐 문제 두 경로를 그림 4와 같이 추가한 경쟁모형 구성하고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CFI는 .984, TLI는 .958, RMSEA는 .079로 수정모형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수정모형과의 카이스퀘어 차이검증 결과 경쟁모형은 줄어든 간명성에 비해 늘어난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Delta\chi^2=3.312$, $\Delta df=2$), 수정모형이 보다 우수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에서 설정한 네 가지 매개효과 유의성을 각각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인을 이용하여 부스트래핑을 실시했다. 그 결과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향함 문제(.105, .376)와 맞섬 문제(.146, .315)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가설 1, 3 지지), 멀어짐 문제의 간접효과(.001, -.294)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가설 2 기각). 한

편 외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맞섬 문제의 간접효과(.151, .313)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가설 4 지지). 결과적으로 내현적 자기애는 향함 문제 및 맞섬 문제를 완전매개로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며, 외현적 자기애는 맞섬 문제를 완전매개로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내현적 및 외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과정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역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기애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유형의 대인관계 문제가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고 세 가지 대인관계 문제유형의 매개효과를 개별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는 세 가지 대인관계 문제유형(향함, 멀어짐, 맞섬)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외현적 자기애는 맞섬 문제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인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겪는다는 최민경, 김종남(2010), 최지영, 이영순(2014), 홍서윤(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맞섬 문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인해 타인과 대립하고, 자신이 타인에 비해 우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타인에게 의존하여 끊임 없이 관심을 받으려는 향함 문제나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불편해하는 멀어짐 문제 보다는 맞섬 문제와 관련성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대인관계 문제유형과 SNS 중독경향성의 하위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향함 문제와 멀어짐 문제는 SNS 중독경향성의 하위 유형 중 부정정서의 회피와 가장 높은 상관

이 있었으며, 맞섬 문제는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과 가장 높은 상관이 있었다. 이는 향함 문제와 멀어짐 문제를 가졌을 경우 자신이 대인관계에서 겪고 있는 부정적인 정서를 없애고자 SNS에 빠져드는 반면, 맞섬 문제를 가졌을 경우에는 SNS 사용을 통해 자아도취적이고 자신에 대한 거대한 환상을 가지게 됨으로써 SNS에 중독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는 향함 문제와 맞섬 문제가 매개하였으며, 외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맞섬 문제가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멀어짐 문제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1, 3, 4가 지지되었다. 그동안 자기애가 SNS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내현적 자기애에 대하여 이루어 졌으며, 자기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인관계 문제도 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다루어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을 증가시키는 메커니즘이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하며 그로인해 보다 안전하게 느껴지는 SNS에 집착하게 되거나(박명철, 임용광, 2013), 친밀한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거대한 환상을 드러내면서 타인에게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대인관계의 연장인 SNS에 집착할 수 있는데 반해, 외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타인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대인관계 문제를 지니며 이러한 자기중심의 욕구를 발현하는 수단으로 SNS에 집착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내현적 및 외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대인관계 문제가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현적 및 외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자기애 자체가 SNS 중독경향성 자체를 직접 높이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SNS 중독경향

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대인관계 문제해결적 접근을 취하는 것이 SNS 중독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의 경우 공감 훈련, 주장훈련 등과 같은 사회 기술 훈련 및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인관계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며, 외현적 자기애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의 경우 분노반응을 감소시키고 분노감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정서조절전략, 감수성 훈련 등을 통해 대인관계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인관계 문제를 통한 SNS 중독을 예방하는 치료적 개입 방안으로써 상담 장면이나 SNS 중독과 관련된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연구 결과 이용하는 SNS 유형 중 페이스북 이용자가 75.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스타그램(13.1%), 트위터(5.0%), 카카오톡(2.5%) 순이었다. 즉 대인관계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개방형 SNS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폐쇄형 SNS에 비해 개방형 SNS가 다수의 다양한 사람들과 인맥을 가질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 어려웠던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을 주기에 개방형 SNS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중에서도 페이스북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이는 관계지향적인 목적으로 페이스북을 이용한다는 이전 연구 결과들(김위근, 최민재, 2012; 이지은, 한성준, 이상욱, 정동훈, 2013)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자 페이스북에 몰입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멀어짐 문제는 SNS 중독경향성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 대한 매개역할이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2가 기각되었다. 더욱이 멀어짐 문제는 SNS 중독경향성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통계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독립변인인 대인관계 문제 간의 공통변량이 상쇄되

면서 나타난 억제효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멀어짐의 문제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정적 혹은 부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외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 문제 및 SNS 중독경향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외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를 살펴본 이전 연구결과(Prifitera & Ryan, 1984; Raskin & Hall, 1981)와 다른 결과인데, 이들의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 문제에 순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외현적 자기애의 영향이 상반되게 나타난 이유 중 하나는 측정의 차이에 찾을 수 있다. 즉, 외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 문제에 순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에서는 외현적 자기애 측정을 위해 NPI(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를 이용하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NPDS를 이용하였기 때문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심상홍, 이장한(2012)은 NPI가 비교적 건강한 측면의 자기애를 반영하는 것과 달리 NPDS는 다소 병리적인 형태의 자기애를 반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인과관계 연구로서 명확한 인과관계의 증명을 위해서는 실험연구 혹은 중단연구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인 연구 제약으로 인해 Survey Research로 진행하였다. 그로 인해 동일 설문지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모두 포함됨으로써 발생하는 Survey Research의 기본적인 한계인 ‘인과관계의 불명확성’ 즉 Common Method Bias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변인 간의 인과관계 설정에 있어서 안정적인 성격(trait) 변인인 자기애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상태(state) 변인인 SNS 중독경향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기존연구들(김보경, 2014; 피승정, 2013; Park, D., & Kim, H., 2015)을 토대로 ‘대인관계 문제 → SNS 중독 경향성’의 인과관계를 가정하였으나, 매개변인인 대인관계 문제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는 본 연구의 가설과 달리, SNS 중독경향성에 의해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하는 인과관계 설명도 충분히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문제 중 멀어짐 문제가 SNS 중독경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본 연구가 횡단 연구로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즉 멀어짐 문제를 겪고 있는 당시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구분 없이 대인관계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시간이 가면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안전한 온라인 대인관계를 통해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종단적 자료 수집이 이어진다면 멀어짐 문제도 SNS 중독경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20대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 제약이 있다. 비록 SNS 이용의 주 연령층이자 대인관계가 중요한 시기인 20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수행될 경우 연령층에 따라 SNS 중독경향성은 상이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비임상 집단을 측정하는 외현적자기애 척도 NPI가 아닌 DSM-III-R의 진단기준을 보완한 자기애성 성격척도 NPDS를 사용하였다. 이는 역기능적인 측면이 강한 내현적 자기애 측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판단이었으나 NPI를 사용한 연구들과 상이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정상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NPDS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남겼다. 따라서 외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척도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정상인 집단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대인관계 및 SNS 중독경향성의 평균이 낮은 수준이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인 상황에

서의 인과관계 경향성일 뿐, 실제로 대인관계 문제나 SNS 중독 수준이 심각한 경우의 인과관계를 말해주는 결과라고는 보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인과관계를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평균이상으로 높은 SNS 중독경향성을 보여준 응답자들(N=96)을 선별하여 이들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실시했다. 표본수의 한계로 인해 모형검증은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주요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SNS 중독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전체 표본에 비해 대인관계 문제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 전체점수와의 상관관계가 .425에서 .227로 감소했다. 하위 범주별로 볼 때, 맞섬 문제는 .48에서 .34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유의한 반면, 향함과 멀어짐과의 상관관계는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수준의 SNS 중독경향성에 대해서는 대인관계 문제 중 맞섬 문제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반대로 해석하자면 SNS 중독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대인관계 문제보다도 맞섬 문제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내현적 및 외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과정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역할을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개방형 SNS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SNS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대상은 주로 누구인지, 그들과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해 소통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이 점을 보완한다면 SNS 중독경향성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

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강은정, 장성숙 (2007). 자기애와 내현적 대인반응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13-932.

권석만 (1995). 정신병리와 인지 1: 정서장애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세미나 자료, 1995(1), 49-95.

김선미, 서경현 (2015).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3), 587-603.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황, 박은영.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391-411

김위근, 최민재 (2012).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이용동기가 실제 이용과 메시지 특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정보학보, 60, 150-171.

김종운, 양민정 (2014). 대학생의 애착과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4(2), 283-299.

김환표 (2013). 트렌드 지식 사전, 서울: 인물과사상사.

류경희, 홍혜영 (2014). 중학생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와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 공격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8), 157-183.

박경자, 유 일, 이윤희 (201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사용의 부정적 감정과 사용중단의도에 관한 연구. 지식경영연구, 15(2), 89-106.

박명철, 임용광 (2013). 대학생들의 자존감 수준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중독범죄학회 학술대회, 2013(1), 12-20.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의 정서특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55-266.

백승혜, 현명호 (2008).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표현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1001-1017.

서경현, 조성현 (2013). SNS 중독경향성 관련 요

- 인 탐색: 내현적 자기애, 자기제시 동기 및 소외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239-250.
- 심상홍, 이장한 (2012). 자기애 성격장애 척도의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2), 87-100.
- 오윤경 (2012). SNS중독경향성과 외로움, 우울, 대인관계, 사회적지지와의 관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홍석 (2007).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 유형.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성범, 남숙경, 이승민, 양은주 (2012). 이차원적 자기애적 성향과 연애관계 양상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26(1), 87-101.
- 이계정, 정남운 (2007). 내현적 자기애 성격성향과 인터넷 보상경험이 인터넷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55-69.
- 이민진, (2012).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대인관계 양상.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호 (2013).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중독에 관한 정책적 함의 연구: 한국형 SNS 중독지수(KSAI) 제안을 중심으로. 디지털정책연구, 11(1), 255-265.
- 이순희, 차은정 (2014). 대학생의 우울, 자아존중감, 대인관계가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료분석학회, 16(5), 2781-2793.
- 이정권, 최 영 (2015).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 연구. 한국언론학보, 59(1), 115-148.
- 이정숙 (2012). 대학생의 대인 관계가 인터넷 중독 수준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매개변인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0(2), 115-134.
- 이지은, 한성준, 이상욱, 정동훈 (2013). 소셜미디어 이용 목적에 따른 이용자의 상호작용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528-531.
- 이형득 (1992). 상담이론, 서울: 교육과학사.
- 정구철, 문중호 (2014).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4(1), 388.
- 정남운 (2001). 자기애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21-237.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세대간 미디어 이용 특징 변화. KISDI STAT REPORT.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소영, 김종남 (2014).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147-166.
- 정애리, 유순화 (2008). 고등학생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18, 139-160.
- 최민경, 김종남 (2010). 청소년의 자기애 성향과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탄력성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747-763.
- 최중순 (2003).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자기표현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영, 이영순 (2014).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분노표현양식 및 공감능력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21(1), 77-95.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인터넷이용자의 SNS 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혜원, 문아름 (2014).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은유적 특성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15(5), 621-630.
- 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KIIP-SC)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23-940.
- 홍서윤 (2014).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2), 73-95.

- 황순택, 오경자, 최정훈 (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준거 개발.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55-271.
- 황희은, 김향숙 (2015). 자존감, 사회불안 및 대인관계 지향성이 중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9), 233-253.
- Aviram, I., & Amichai Hamburger, Y. (2005). Online Infidelity: Aspects of Dyadic Satisfaction, Self Disclosure, and Narcissism. *Journal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10(3), article 1. Retrieved June 22, 2007 from <http://jcmc.indiana.edu/vol10/issue3/aviram.html>
- Barbera, D. L., Paglia, F. L., & Valsavoia, R. (2009). Annual Review of Cybertherapy and Telemedicine 2009: *Social network and addiction*. (pp. 33-36), Netherlands: IOS Press.
- Buffardi, L. E., & Campbell, W. K. (2008). Narcissism and social networking web si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10), 1303-1314.
- Cooper, A. (2000).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Disorder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 London: Jason Aronson Inc.
- Dougherty, R. J., & Lesswing, N. J. (1989). Inpatient cocaine abusers: An analysis of psychological and demographic variables.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6(1), 45-47.
- Drussell, J. (2012). *Social networking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skills among college freshmen*. Master of Social Work Clinical Research Papers. Paper21. http://sophia.stkate.edu/msw_papers/21.
- Emerson, R. M. (1976). Social exchange theory. *Annual review of sociology*, 335-362.
- Fernandez, L., & Sztulman, H. (1998). Variability of tobacco addiction and narcissistic disposition: a comparison of non-smokers and smokers undergoing stop smoking treatment. *European Psychiatry*, 13(1004), 231s-231s.
- Hofmann, W., Vohs, K. D., & Baumeister, R. F. (2012). What people desire, feel conflicted about, and try to resist in everyday life. *Psychological Science*, 23(6), 582-588.
- Horney (2006). 신경증적 갈등에 대한 카렌 호나이의 정신분석. [OurInner Conflicts]. (이희경, 윤인, 이해라, 조한익 역). 서울: 한국 심리치료 연구소. (원전은 1983에 출판)
- Horowitz, L. M. (1996). The study of interpersonal problems: A Leary legac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2), 283-300.
- Ji, Y. G., Hwangbo, H., Yi, J. S., Rau, P. P., Fang, X., & Ling, C. (2010). The influence of cultural differences on the use of social network services and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 Computer Interaction*, 26(11-12), 1100-1121.
- Kalkan, M. (2012). Predictiveness of interpersonal cognitive distortions on university students' problematic Internet us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7), 1305-1308.
- Kelley, H. H., & Thibaut, J. W. (1978). *Interpersonal relations: A theory of interdependence* (p. 341). New York: Wiley.
- Kerr, A. E., Patton, M. J., Lapan, R. T., & Hills, H. I. (1994). Interpersonal correlates of narcissism in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3(2), 204-210.
- Kuss, D. J., & Griffiths, M. D. (2011).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addiction—a review of the psychologic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8(9), 3528-3552.
- Leary, T.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a functional theory and methodology for personality evaluation*. New York: Ronald Press.
-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
- Park, S. Y., & Kang, Y. J. (2013). What's going on in SNS and social commerce?: Qualitative approaches to narcissism, impression management, and e-WOM behavior of consumers. *Journal of Global Scholars of Marketing Science*, 23(4), 460-472.
- Pearson, C., & Hussain, Z. (2015). Smartphone use, addiction, narcissism, and personality: a mixed methods investig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yber Behavior, Psychology and Learning (IJCBPL)*, 5(1), 17-32.
- Prifitera, A., & Ryan, J. J. (1984).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in a psychiatric samp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0(1), 140-142.
- Raskin, R., & Hall, C. S. (1981).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lternative form reliability and further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2), 159-162.
- Salehan, M., & Negahban, A. (2013). Social networking on smartphones: When mobile phones become addictiv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6), 2632-2639.
- Akhtar, M. D., & Thomson Jr,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 Swensen, C. H. (1973). *Introduction to interpersonal relations*. Glenview, IL: Scott, Foresman.
- Ward, C. C., & Tracey, T. J. (2004). Relation of shyness with aspects of online relationship involveme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1(5), 611-623.
- Weikel, K. A., Avara, R. M., Hanson, C. A., & Kater, H. (2010). College adjustment difficulties and the overt and covert forms of narcissism.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13(2), 100-111.
- Wells, M. C., Hill, M. B., Brack, G., Brack, C. J., & Firestone, E. E. (2006). Codependency's relationship to defining characteristic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20(4), 71-84.
- Wickel, T. M. (2015). Narcissism and Social Networking Sites: The Act of Taking Selfies. *The Elon Journal of Undergraduate Research in Communications*, 6(1), 5-12.
- 1 차원고접수 : 2016. 01. 13.
수정원고접수 : 2016. 02. 19.
최종게재결정 : 2016. 02. 25.

The Mediating Roles of Interpersonal Problems between Narcissism and SNS Addiction Tendency

Young Eun Lee Hyun Ju Park Chang Goo Heo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narcissism (covert, overt) on SNS addiction tendency and the mediating roles of interpersonal problems. First of all, we categorized interpersonal problems into three types that is moving toward people(Moving Toward), moving away from people(Moving Away), and moving against people(Moving Against). And we assumed that all of three types of interpersonal problems would have the mediating role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NS addiction tendency, while only Moving Against would show the mediating effect between overt narcissism and SNS addiction tendency. The self report survey was conducted to 199 subject who were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 The results are followings. First, the rel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NS addiction tendency was fully mediated by moving toward, moving against. Second, the relation between overt narcissism and SNS addiction tendency was fully mediated by Moving Against. Finally, Moving Away showed suppressor effect to SNS addiction tendency but the effect was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limitation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 Narcissism, SNS Addiction Tendency, Interpersonal Problem